국외출장 결과보고

방통위 태국,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결과

-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 확대 -

◆ 기　　간 : 2019. 10. 27.(일) ~ 11. 1.(금), 5박 6일

◆ 방문국가 : 태국(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2019. 11.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출장 개요 ····· 1

Ⅱ. 세부 활동 ····· 2

1. Thai PBS(공영방송국) 방문 및 면담 ····· 2

2. 트루CJ크리에이션스 방문 및 면담 ····· 9

3. 문화부(MOC) 방문 및 면담 ····· 14

4.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방문 및 면담 ····· 21

5. BERNAMA(공영방송국) 방문 및 면담 ····· 25

6.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방문 및 면담 ····· 33

Ⅲ. 언론보도 현황(4건) ····· 40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 확대

2. 출장 국가 : 태국(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3. 출장 기간 : '19년 10월 27일(일) ~ 11월 1일(금), 5박 6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표 철 수
2	운영지원과	상임위원 비서관	김 정 수
3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	강 유 신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박 현 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책임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동행

5. 주요 활동

o **(태국)** 방송콘텐츠 제작 협정 논의 및 방송통신 규제기관 방문 등 정부간 정책 협력 방안 논의

o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규제 기관 방문 및 한류 현황 파악과 협력 방안 논의

6. 선물수령 관련

o 선물 수령 여부 : ○ (태국 PBS, 문화부, 말레이시아 BERNAMA)
o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Ⅱ 세부 활동

1. Thai PBS(공영방송국) 방문 및 면담

□ 개 요

o 일 시 : '19. 10. 28.(월) 10:00 ~ 11:30

o 장 소 : 태국 방콕 Thai PBS 회의실

※ 주소 : 145 Vibhavadi Rangsit Rd, Talat Bang Khen, Lak Si

o 면담자 : Anupong Chaiyariti 부국장, Sudarat Disayawattana chantrawatanakul 부국장, Suleeporn Pathomnupong 프로그램 부서장 등

o 의 제 : Thai PBS 기관 소개,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허위조작 정보 관련 대응, OTT 등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 디지털 및 UHD 방송

< Thai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개요 >

o (설립) 태국 공공 방송 서비스 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
o (소유)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소유 국가 기관(State Agency)
o (사업 현황) 뉴스, 다큐멘터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중심 제작 및 방영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o (Thai PBS) 우리 기관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함. 여러 가지 의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먼저 Thai PBS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함.

o (KCC) 방문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리며, Thai PBS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림.

o (Thai PBS) Thai PBS는 최초로 광고 없는 방송사로 2008년에 설립되었고 재원은 담배주류세로 확보하며 연간 미화 6천만 달러 규모임.

【 OTT 등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

o (Thai PBS) 2019~2020년까지의 뉴미디어 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음

- 첫 번째는 플랫폼사업으로, 웹사이트, SNS, 모바일, 라디오, 그리고 올해 출시한 OTT 서비스임

- 두 번째 정책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나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있음

-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권한임. 대부분의 미디어가 디지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웹사이트 권한 등의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음

- 네 번째는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기술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챗봇, VR과 LINE BCRM(Business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을 통해 시청자와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활동도 하고 있음.

- 자체 OTT 서비스인 VIPA(vision and passion)를 10월 초에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OTT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KCC) Thai PBS가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 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설명에 감사드림. 특히 세계적인 주요 쟁점인 OTT 서비스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가 잘 이해됨.

- 세계 각국이 OTT 서비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OTT에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Thai PBS에서는 OTT를 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달하는지?

o (Thai PBS) 정부로부터 매년 20억 바트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BBC, KBS, EBS 등 많은 방송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음.

o (KCC) 방송사의 재원이 통신사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 통신사의 자본력이 월등함. 한국의 지상파 3개사와 SK Telecom 통신사가 연합해서 웨이브라는 새로운 OTT 서비스가 출범하였음.

o (Thai PBS) 태국도 OTT 사업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iflix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팔려고 하고 있음. 사실 또 하나의 제약은 PBS는 수신료나 구독료를 법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o (KCC) 한국은 콘텐츠의 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활발한 진출은 위협으로 생각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규제기관으로서 글로벌CP와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불균형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하고 있음. 태국도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했는데,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o (Thai PBS) OTT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인 NBTC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음. PBS는 법적으로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태국의 PBS 유튜브에는 광고가 없도록 계약을 맺어 콘텐츠의 유통만 되고 있는 상태임.

o (Thai PBS) 최근 OFCOM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영국에서도 BBC의 콘텐츠를 넷플릭스를 이용해 소비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o (KCC)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으로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한국 고유의 OTT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상파와 통신사가 연합한 OTT가 출범하게 된 것임.

- 제언을 드리자면, OTT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o (Thai PBS) 특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들이 미국이라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o (KCC)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이기도 하고 한국과는 동맹의 관계임. 한국은 미국의 콘텐츠를 선호함.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 CP에 대해 한국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내 OTT 서비스를 강화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o (KCC) Thai PBS 자체 OTT 서비스인 VIPA(vision and passion)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함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

o (KCC)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이 와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은 각 국에서 경쟁도 하지만 협업도 필요한 부분임. 우리의 최고 관심사인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o (Thai PBS) EBS와 다큐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하고 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콘텐츠 재판매시 수익은 나눠 갖는 방식임. 멸종 코끼리에 관한 다큐로 EBS는 4개, 우리는 1개 에피소드를 제작하고 수익은 나누는 방식임. 또한 대만의 PTS와도 계획 단계부터 같이 해서 EBS와 같은 수익 모델로 제작중임.

o (KCC)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이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린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 NBTC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내일 방문시 기존의 공동제작 MoU를 발전시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조치와 더불어 방송사끼리 협력도 활발해져야 함. EBS는 다큐뿐 아니라 어린이 교육 분야도 유명하므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제작 분야를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또한, 같은 공영방송국으로 KBS와의 협조도 기대함. '12~'14년까지 CARE 시리즈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음.

o (Thai PBS) KBS와는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CARE 시리즈에 참여할 예정임. 두 방송사가 ABU 회원국으로 매년 교류를 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애니매이션의 80%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o (KCC) 한국인은 태국에 관광을 많이 오고, 문화·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방송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허위조작정보 관련 대응 】

o (KCC) 세계적으로 주요 쟁점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PBS의 대책은?

o (Thai PBS) 태국의 디지털경제부가 가짜뉴스 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이 서로 돕고 가짜뉴스를 확인 및 방지하고 있음.

o (KCC) 가짜뉴스는 특히 신문이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센터에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지?

o (Thai PBS) 기존의 미디어 관계자와 사업자를 초청하여 참여하고 있음.

【 디지털 및 UHD 방송 】

o (KCC)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에서 방송에 대한 정책, 규제,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 시장조사,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인터넷 윤리등도 담당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협력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o (Thai PBS) 한국의 인터넷 윤리와 방송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함.

o (KCC) 방송사 입장에서 UHD 방송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국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UHD로 방송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o (Thai PBS) 4~5년 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으나 NBTC는 UHD에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디지털 라디오에 주파수 배분을 하였음.

【 마무리 】

o (KCC)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Anupong Chaiyariti 부국장 및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사와 Thai PBS간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함

- 11월 25일부터 한국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됨. 특히 태국은 아세안 의장국으로 방송사 입장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함.

- 또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각 국에서 정부 관계자 및 방송사들도 많이 참여하니 PBS도 참석하시어 공동제작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실 수 있기를 권유 드림. 내년행사에는 초청하도록 하겠음.

< 태국 Thai PBS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2. 트루CJ크리에이션스 방문 및 면담

□ 개 요

o **일 시** : '19. 10. 28.(월) 14:00 ~ 15:30

o **장 소** : 트루CJ 크리에이션스 회의실

※ 주소 : 32/28 Ratchadaphisek 32 Alley, Lane 5-1, Chan Kasem, Chatuchak

o **면담자** : 임준식 팀장

o **의 제** : 태국 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한류 방송콘텐츠 확대 방안, 태국 콘텐츠 규제 현황 등

< True CJ Creations 개요 >

o **(설립)** 2016년 10월 설립

o **(진출형태)** 태국 최대 종합미디어 사업자인 True Visions과 미디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True CJ Creations'출범

o **(사업 목표)** CJ E&M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에 현지 미디어 사업 인프라를 결합하여 태국에서 현지화된 방송 콘텐츠 제공

□ 주요 논의 내용

【 True CJ Creations 소개 】

o **(트루CJ)** 태국 CP그룹 자회사인 True Visions과 CJ E&M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콘텐츠 제작사로 드라마, 예능 등의 리메이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 True4You라는 채널로 방송하고 있으며, 투자지분은 CJ가 49%이나 이사회 9명 중 5명이 CJ측 인사로 실 경영권은 CJ측에 있음.

- 방송콘텐츠 제작(Remake)현황은 '18년 예능 5개 '19년 드라마 3개, 예능 5개이며, '20년에는 드라마 6개, 예능 7개로 확대 예정임.

- 태국 내 콘텐츠 유통은 업계 12위 자회사인 True4You를 이용하고 글로벌(아시아) 유통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음. 최초로 넷플릭스에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을 판매하였고, 드라마 터널과 보이스도 판매하였음.

o (KCC) 태국에서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o (트루CJ) 전체 매출은 100억원 정도이고 태국 전체제작사 중 2위 정도임. CH3과 CH7도 제작은 하지만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고 연간 1~2개의 콘텐츠만 제작하는 실정임.

- 제작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태국 자체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고 CH3은 지난해 최초 적자가 발생한바 있음.

o (KCC) 글로벌 OTT사업자가 모든 콘텐츠 판권을 독점하는 문제는 한국도 심각한 상황이고, SKT와 지상파방송사가 연합하여 웨이브 플랫폼을 선보임.

- CJ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과 판매를 국내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태국 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

o (KCC) 태국은 방송콘텐츠가 약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방송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CJ가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o **(트루CJ)** CH3과 CH7이 대표채널로 활동하고 있고, 태국은 디지털 지상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NBTC가 28개 채널을 일시에 허가하면서 방송채널이 난립한 상황임.

- 태국 주요채널의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는 구태의연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시청자 층은 40대 이상임. 젊은 층의 시청자는 모바일 등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True CJ는 한국의 로멘틱코미디와 액션물 등의 장르 위주로 Remake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광고를 포함 전체채널 매출은 약 2조 5천억원으로 추정. 순수채널 매출은 1.5조원 정도의 규모이며, 나머지 OTT매출은 약 5천억원 정도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차지하며 주력인 유튜브의 전세계 사용량은 태국이 1위이지만 매출은 싱가포르 매출로 산정됨.

- 태국은 광고 이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콘텐츠 유통 생태계가 없고 대부분의 음원이나 VOD등 콘텐츠가 해적판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TV나 넷플릭스 외에는 거래가 불가함.

o **(KCC)** 불법콘텐츠 거래를 정부측에서 규제하고 있는지?

o **(트루CJ)** 정부관계자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워 글로벌 OTT사업자에 판권을 판매하는 상황임.

【 한류 방송콘텐츠 확대 방안 】

o **(KCC)**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태국 VOD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 확산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트루CJ의 대응방안은?

o **(트루CJ)** 중국의 한한령으로 한류콘텐츠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트루CJ는 태국콘텐츠로 중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중임.

- 중국시장은 크고 중국과 동시 방송시 드라마 편당 6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작비를 100%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

- 방송 종료 후 VOD판매 시에는 약 1/3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주로 더빙 방식으로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음.

o **(KCC)** 방통위는 동남아국가와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환경은 어떠한가?

o **(트루CJ)** 태국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동제작을 하더라도 태국시장에 자체 공급될 경우 콘텐츠가 보호받을 수 없음.

- 태국은 2개의 사업자가 영화관과 배급을 독점하고 있음.

- CJ E&M과 최대 영화사업자인 메이저 시네플랙스가 합작법인 CJ 메이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연 1~2편을 공동제작하고 있음.

【 태국 콘텐츠 규제현황 】

o **(KCC)** 태국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가?

o **(트루CJ)** 콘텐츠 제작 시 간접광고가 될 수 있는 브랜드 노출은 자유로운 편이나 술과 담배 등은 엄격하게 규제됨.

- 동남아 시장 중 태국의 콘텐츠 시장이 가장 크지만 콘텐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제작사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

- 태국은 경제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일본의 콘텐츠는 소비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마무리 】

o (KCC)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지원해 줄 부분은 없는지?

o (트루CJ) 태국은 라이선스 보호가 취약하고 공동제작을 희망하지만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많음.

- 공동제작 방식이나 상호간 활용 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영화 조인트벤처도 운영 중에 있고, K-Con 행사도 진행 중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o (KCC) 타국에서 방송한류를 위해 수고가 많음. 정부에서는 NBTC나 MOC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니 한류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트루CJ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3. NBTC 방문 및 면담

□ 개 요

o **일 시** : '19. 10. 29.(화) 13:30 ~ 14:30

o **장 소** : 태국 방콕 국가방송통신위원회 1층 회의실

※ 주소 : 87 Phahonyothin Rd, Samsen Nai, PhayaThai

o **면담자** : Col. Natee Sukonrat 부위원장, Pasu Srihirun 방송정책연구국 상무, Ittima Suphakasem 방송정책연구국 방송정책실장 등

o **의 제** : 프로그램 공동제작, OTT 서비스 규제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5G 등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개요>

o **주요 임무** : 통신 면허 발급, 주파수 재분배 등 통신 규제 및 방송 서비스 개시 등 방송 규제 업무

o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7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o (NBTC)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방문에 감사드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작년 한국을 방문하여 콘퍼런스에 참석하였었는데 오늘은 그 때 시작한 일을 더 진전시킬 수 있기를 바람.

o (KCC) 나띠 수콘랏 부위원장님 여러 관계자분들이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림. 특히 부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린 프로그램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프로그램 공동제작 】

o (KCC) 이번에 여기 온 목적은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대한 협정을 진전시켜 두 국가 간의 공동제작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

- 작년 연말에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서 이달 초에 다시 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람.

o (NBTC) 보내주신 협정문 초안을 검토하여 문화부로 이송하였음.

o (KCC) 오늘 오후에 문화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문화부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할 예정임.

o (NBTC) 저희는 공동제작 관련해서 펀딩이 마련되어 있음.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태국측 641 미디어, 한국측 237 미디어그룹이 하는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천만 바트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o (KCC) 프로그램 공동제작은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으므로 잘 되었으면 좋겠음.

【 OTT서비스 규제 관련 】

o (KCC) 태국 정부에서 디지털 지상파 채널 28개를 동시에 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허가해서 채널을 운영할 경우 광고시장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까지 예측이 된 것인지?

o (NBTC) TV는 시청률이 머물러 있는 수준임. 24개 채널을 허가해 주었는데 7개는 채널을 반납한 상황임.

o (KCC) 한국에도 채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상파의 광고 시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시청자의 시청형태는 모바일로 빠져 나가고 있음.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o (NBTC) 태국도 마찬가지로, 시청형태가 지상파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임.

o (KCC)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가 이슈인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자국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상황임. 한국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 태국에서는 어떠한지?

o (NBTC)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의 규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 하려고 함.

-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우리의 유료 사업자들과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좋은 대책을 찾게 되시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o (KCC) 한국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파 3사와 통신사가 연합해서 웨이브라는 OTT 회사를 출범해서 대응을 하고 있음.

-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들이 한국의 영화나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위협이 큰 상황임.

- PBS에서도 자체 OTT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여러 방송사가 연합하거나 자본이 큰 회사와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글로벌 OTT의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의 경우는 OTT 서비스가 부가통신으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규제체계를 마련 중임.

o (NBTC)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규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o (KCC) 한국에서 법적인 규제 기반이 마련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음. 혹시 NBTC에서도 좋은 정책이 나오면 알려주시길 바람.

【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5G 등 】

o (KCC) 세계적으로 주요 쟁점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앞서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음.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NBTC는 어떠한지?

o (NBTC)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부 소관으로, 디지털 경제부에서 가짜뉴스 센터를 만들었음.

o (KCC) 한국은 5G가 상용화 되어 있는데 태국은 상용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o (NBTC) 내년 초 5G를 위한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o (KCC) 5G는 미래로 가는 첨단 분야이므로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이 성공하길 바람. 한국은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두 국가간, 두 기관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람.

o (NBTC) 특히, 한국의 5G 모범사례 등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가 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배워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o (KCC) 태국은 한국인이 관광도 많이 오고, 문화 ·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이러한 콘텐츠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한국은 UHD 방송도 하고 있는데 태국은 어떠한지?

o (NBTC) 우리는 아직 UHD를 위해 배정할 수 있는 지상파 주파수가 부족함.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성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NBTC가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말씀하신대로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고 한국의 콘텐츠가 태국에서 인기가 매우 좋음. 이러한 좋은 콘텐츠를 UHD 등 좋은 기술로 제공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음.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협력을 통해 기술을 진전시킨다면 태국민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o (KCC) 어제 태국과 한국의 합작법인 트루CJ 관계자를 만났는데, 태국은 저작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들음. 저작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o (NBTC)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됨.

o (KCC) 한국에서는 VOD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나 방송사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태국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이나 전망은 어떠한지?

o (NBTC) 태국에서는 VOD 시장이 초창기에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o (KCC)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VOD 시장이 활성화 되면 콘텐츠에 제작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에 유리함. 전 세계가 콘텐츠의 전쟁이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기를 바람.

【 마무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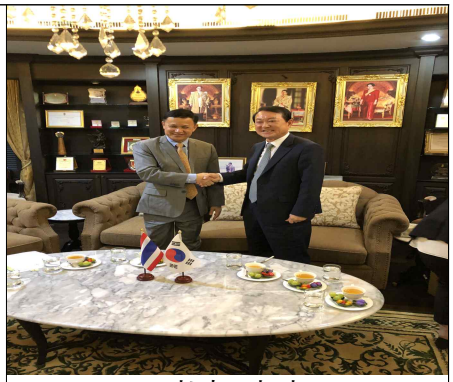
o (KCC)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Col. Natee Sukonrat 부위원장 및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NBTC간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함.

- 11월 25일부터 한국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됨. 특히 태국은 아세안 의장국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함.

o (NBTC) 우리는 KCC와 NBTC간의 부처간 협력을 넘어 국가차원에서도 진행되기를 바람. 태국의 총리도 공개적으로 '태양의 후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지지하고 있음.

o (KCC)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해서 국장급 실무협의체가 잘 운영되기를 바람.

< NBTC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4. 태국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방문 및 면담

□ 개 요

o 일 시 : '19. 10. 29.(화) 16:00 ~ 17:30

o 장 소 : 방콕 태국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회의실

※ 주소 : 10 Thiam Ruam Mit Rd, HuaiKhwang

o 면담자 : Kitsayapong Siri 차관, Prasop Riang ngoen 차관보, Nuanvan Daraswasdi 국가시청각위원회 사무국장, Phetcharat Saithong 정책 및 전략 담당관 등

o 의 제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관련 협력방안, 기타 콘텐츠 등 협력 방안 등

< 태국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개요 >

o **(연혁)** 1938년 순수예술부 내 문화부서 설립, 1952년 MOC로 설립

o **(대표)** Mr. Vira Rojpojchanarat 現문화부 장관(부총리 겸임)

o **(조직 현황)** 6개 실무국과 3개 직속기관으로 구성

□ 주요 논의 내용

【 인사말씀 】

o (KCC) 킷세이야퐁 시리 문화부 차관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환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오늘 방문한 목적은 지난해 말 보내드린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을 구체화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함.

- 전 세계가 콘텐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상대국과 공동제작을 통해 제3국에 진출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 오늘은 공동제작에 대해 논의를 희망함

- 한국의 불교문화와 가족문화 등이 태국과 유사해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협정 협력방안 】

o (KCC) 지난해 NBTC에 전달한 협정문을 MOC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호간 협력을 위한 협정문의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 내년 상반기 중 협정체결이 완료되기를 희망함

o (MOC) NBTC가 방송관련 주관기관이지만 MOC도 관심을 가지고 협정이 최대한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KCC) 협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빠른 협정체결로 양국간 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함

o (MOC) 협정의 적극적인 추진에 감사드림. 워킹그룹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겠으며, 내부 프로세스를 단축해서 실현하도록 할 것임. 협정에 양국이 동의하고 협정을 실행하길 희망함.

o (KCC) 협조 말씀에 감사드림. 귀국 후 실무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 기타 콘텐츠 등 협력방안 】

o (KCC) MOC에서 영화를 관장하고 있는데, CJ E&M과 True Visions의 합작법인인 트루CJ 크리에이션스에서 TV프로그램 협력을 하고 있고 CJ 메이저에서 영화 공동제작을 하고 있는데 민간의 교류협력도 잘 되기를 바라고 한국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o (MOC) 한국과 영화 공동제작이 있어 왔으나 민간교류가 원활치 않았음. 태국과 한국간 배급사와 창업자들의 민간비즈니스 미팅이 필요하며, KCC와 MOC가 지원해서 상호 교류기반 마련이 필요함.

o (KCC) 한국 영화관련 산업계와 문화부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음.

o (MOC) 제작, 촬영, 출연 등 영화 관련 창업인력이 많은데 한국 창업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상호교류의 기회 부여가 필요함.

- 한국 미디어의 글로벌 영향력이 있고 대장금이나 주몽 같은 작품이 크게 히트했고, 도덕적·문화적 관점이 가미되어 있는데 공동제작을 통해 양국민이 문화를 공유하고 더 친숙해지고 제3국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임.

o (KCC)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함. 양국은 오랜 왕조문화가 있었던 점등 유사점이 많음. 다큐,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한국 정부에 요청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o (MOC) 태국은 국제적 협정체결에 국무회의, 의회 동의 절차 등 여러 단계가 있어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이번 협정이 양국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마무리 】

o (KCC) 새국왕 즉위 후 동굴에 갇힌 소년들을 모두 구조한 뉴스에 한국인들이 깊이 감명 받음.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함

- 오늘 논의한 사항은 귀국 후 충실히 추진하겠음

o (MOC)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긴밀한 협력이 되기를 바라고 방송·통신·영화 분야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람. 한국은 미디어나 콘텐츠제작 부분에서 태국의 모델이 되어왔음.

o (KCC) 양국이 힘을 합친 콘텐츠가 세계로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음.

< MOC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5. BERNAMA[공영방송국] 방문 및 면담

□ 개 요

o **일 시** : '19. 10. 31.(목) 10:00 ~ 11:30

o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BERNAMA 회의실

※ 주소 : Jalan Tun Razak, Titiwangsa, 54100 Wilayah Persekutuan

o **면담자** : Datuk Seri Azman 의장, Datuk Mokhtar Hussain 편집장, AIBD 배중섭 국장,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조창연 서기관

o **의 제**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공영방송의 재원, 시청형태 변화에 따른 전략 등

< BERNAMA개요 >

o **(명칭)** : 베르나마(Berita Nasional Malaysia, BERNAMA)

o **(개요)** : BERNAMA는 1967년 의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68년 5월에 법적 기관으로서 균형 잡힌 뉴스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국립 통신사로 운영을 시작

o **(소관부처)**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KKMM) 산하 독립기관

o **(연혁)** 1967년 의회법에 의해 설립, 196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뉴스 에이전시로 운영 시작, 1998년 시청각 부서가 개설되면서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여 보고를 시작

※ 참고 : BERNAMA의 재원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기여금(65%)과 구독비(28%)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장비임대, 건물임대, 기타수입 등)수입 등이 있음(2014년 기준)

□ 주요 논의 내용

【 인사말씀 】

o (BERNAMA)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철수 위원님과 대표단 방문에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o (KCC) 다툭 세리 위원장 및 다툭 목타르 편집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이 환영을 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함.

- 이번 BERNAMA를 방문한 목적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와의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 프로그램도 공동제작하여 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3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임.

【 BERNAMA 소개 】

o (BERNAMA) 한국의 연합뉴스와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공영 뉴스 전문 채널이며, 설립한지는 52년째임. 뉴스 콘텐츠를 TV, 라디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하고 있음.

o (KCC) 한국의 연합뉴스도 10년 전에 뉴스만 전문으로 하는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음.

o (BERNAMA) 저희도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의 회원으로 다음 주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연합뉴스 주관의 OANA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니, 그 때 연합뉴스나 다른 관계자들과 만나서 변화하는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으면 함.

o (KCC) 한국에 오는 일정을 알려주시면 시간을 내어 꼭 만나 뵙길 희망함. 한국에는 제일 큰 연합뉴스라는 에이전시가 있고 뉴스1과 뉴시스 등의 에이전시가 있지만 TV를 운영하는 곳은 연합뉴스가 유일함.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

o (BERNAMA) 저희도 뉴스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고, 드라마 채널은 없지만 정보제공 채널을 운영하며 시사·토크쇼도 방송하고 있음. 라디오에서는 매주 월요일 4시5분에 20분 동안 '한류코리아'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기술·오락·엔터 등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 등을 방송하고 있음. 특히 K-POP이 인기가 많음.

o (KCC) 말레이시아에서 특별하게 방송하는 '한류코리아' 프로그램에 감사하게 생각함.

-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11월 25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도 그 일환이며, BERNAMA도 뉴스 에이전시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함.

o (BERNAMA) 다큐, 비즈니스, 기술· 여행 관련 분야에서는 공동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많이 가고 음식과 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공동제작 하면 좋을 것 같음.

【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

o (KCC) BERNAMA는 뉴스만을 다루는 방송국이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을 것 같음. 말레이시아는 어떠한지?

o (BERNAMA)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이슈인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문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사의 정확성과 속도가 문제임. 사실을 빨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짜 뉴스가 빨리 나오는게 문제임.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아야 함.

- 정부차원에서는 가짜뉴스 법을 만들었으나,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는 기존의 법률체계로 가짜뉴스를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가짜뉴스에 특정된 법이 생길 경우 법을 남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o (KCC) 한국에서도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오류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내 의사에 맞게 몰아가기 위한 경우가 많아짐.

-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정식 뉴스는 따라가는 속도가 늦고, 특히 선거철에 가짜 뉴스가 횡행함.

- 한국도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의견도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도 세계 각국의 가짜뉴스 대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o (BERNAMA) 말레이시아는 최근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팩트 체킹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나, 가짜뉴스의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는 못함. 학교에서 교육을 강화하거나 기자들이 더 빠른 팩트체킹을 해야 함. 북한에서 오는 가짜뉴스는 없는지?

o (KCC) 북한에서의 가짜뉴스는 철저히 검증이 가능하기에 별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전개될 것 중 심각한 것은 deep fake 뉴스임. 지난번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등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한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대학에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27개 언론사가 같이 참여해서 가짜뉴스를 체크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 중임.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킹 웹사이트에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o (BERNAMA)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BERNAMA의 뉴스 스토리를 올리고 있음. 정부 뉴스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가짜뉴스가 BERNAMA의 로고를 붙여서 악용하고 있음.

【 공영방송의 재원 】

o (KCC) BERNAMA는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어떤 방법으로 뉴스를 송출하는지?

o (BERNAMA) 케이블 방송사 아스트로로 500만~600만 가구에 송출을 하고 있고, 유니파이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그리고, 아이플릭스라는 OTT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o (KCC) 한국의 연합뉴스는 24시간 뉴스전문 방송으로 케이블, IPTV, 위성방송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약 2,200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음. BERNAMA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o (BERNAMA) 재원은 정부조달 및 구독자의 구독료로 구성되며, 직원들의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나,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음(시청료는 받고 있지 않음). 직원은 약 1,000명으로 방콕 · 싱가포르 · 자카르타에 지사가 있음. 한국의 연합뉴스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 국영방송국인지?

o (KCC) 한국의 연합뉴스 TV는 국영이 아닌 공영방송국으로 모회사인 연합통신은 정부자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음. 방송의 수입은 주로 광고와 협찬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뉴스를 공급받는 일반 기업이나 방송사로부터 구독료와 케이블, 위성, IPTV로부터 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 등의 수입이 있음.

【 시청형태 변화에 따른 전략 】

o (KCC) 한국의 시청자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가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음. 특히, 젊은 층은 일반 TV를 거의 보고 있지 않아 지상파 등의 방송국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어떠한지?

o (BERNAMA) 말레이시아도 광고시장이 모바일로 이전하고 있어 지난해 주요 신문사 3개가 문을 닫았음. BERNAMA도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로 처음 만들어져 앞으로의 미래가 고민임.

- 인터넷의 발달로 내일의 신문이 필요 없고 오늘의 온라인 기사를 보게 되어, 신문사가 없어지면 온라인에 집중해야 하나, 규모가 작아 어려움이 예상됨.

- 캐나다의 경우도 지난 5년간 약 100개의 지역신문사가 폐간함.

o (KCC) 방송은 구독료 외에 광고나 협찬이 있는지? 뉴스와 방송을 운영하는 주체가 같은지, 분리되어 있는지?

o (BERNAMA) 광고수익이 있지만, 크지 않고 광고주가 뉴스전문채널이라 BERNAMA 광고를 선호하지 않음.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정부는 우리가 계속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운영하는 주체는 동일함.

o (KCC) 한국에서는 전문 뉴스 채널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신문 부수 1~3위의 신문들이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을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신문과 방송을 동시 경영하는 미디어 그룹임.

- 이러한 유형이 세계적인 추세임. 한국의 신문은 폐간되거나 그러한 예는 없음. 신문사에서 방송채널을 운영할 때 소유와 경영은 분리하게 되어 있으나, 연합통신이 그렇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음.

- 신문사에서 방송을 소유하고 있어도 4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고 나머지 60%의 주주는 따로 참여함.

o (BERNAMA) 말레이시아는 독서율이 낮고, 출판사도 많지 않아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됨.

o (KCC) 뉴스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에서는 시청자위원회 등 법적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말레이시아는 어떠한지?

o (BERNAMA)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의견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라디오 시청자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마무리 】

o (KCC)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다툭 세리 위원장 및 다툭 목타르 편집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말레이시아의 뉴스 에이전시로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함.

o (BERNAMA) 오늘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에 참석할 예정이니, 다시 뵙기를 희망함.

< BERNAMA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6.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방문 및 면담

□ 개 요

o 일 시 : '19. 10. 31.(목) 15:00 ~ 17:00

o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MCMC 회의실

※ 주소 : MCMC Tower, 1, Jalan Impact, Cyber 6, 63000 Cyberjaya, Selangor

o 면담자 : Zulkarnain Mohd Yassin 최고윤리경영책임자, Norafidah Mohd Yusof, Mohd Shafie Harun, Laila Hassan, Janakky Raju, Mohd Zaidi Abdul Karim

* AIBD 배중섭 국장,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조창연 서기관

o 의 제 : OTT 서비스 규제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

< MCMC(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개요 >

o 설립 : 1998년

o 조직 : ▲위원장 사무실(Chairman office) ▲개발(Development) ▲규범준수(Compliance) ▲디지털(Digital) ▲법인(Corporate) ▲전환(Transformation) 등 6개 리더십 그룹으로 나누어 업무 수행

- 임명된 위원회위원은 위원장, 정부위원회 위원 1인, 비정부위원회 위원 4인 구성됨

※ 말레이시아는 「통신멀티미디어법(1998)」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틀 안에서 규제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내용 규약(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ntent Code, 2004)」은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안에 따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 인사말씀 및 MCMC 소개 】

o (MCMC) 한국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함.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KISA의 정보보안 교육에 참여하여 KISA도 방문하고 상황실도 본 적이 있음. 한국은 정보보안에도 강국이지만 콘텐츠에 강점이 있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함

o (KCC) 줄카나인 야신 최고윤리경영책임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환영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림. 방송통신 분야에서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통신멀티미디어부(KKMM)가 담당하는 역할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o (MCMC) KKMM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부처이고 MCMC는 규제 당국으로서 커뮤니케이션과 멀티미디어 · 우정 · 방송과 전자서명을 담당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과 멀티미디어 분야 중에는 인터넷 도메인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규제 당국으로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며, 규제의 역할도 하는 반면 진흥의 역할도 하고 있음.

o (KCC)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고 3~5년 사이에 재허가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방송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o (MCMC) 방송과 통신을 허가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MCMC가 담당하고 있고 최종 승인은 부처에서 하고 있음. 방송에는 2개의 라이선스가 있음.

- 개인 라이선스는 10년 주기 갱신으로 전국·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방송대상이고 규제가 많음. 클래스 라이선스는 1년 주기 갱신으로 주로 통신사업자 대상으로 규제가 적은 편임. 이 외에도 라디오, 유료방송 및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도 있음.

o (KCC) 한국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용 주파수를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용 주파수를 담당하고 있음.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 구분이 있는지? 주파수 경매 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o (MCMC)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주파수 사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료를 부과함.

o (KCC) MCMC도 이용자 보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 보호 전체인지,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관할하고 있는지?

o (MCMC) 방송, 통신, 멀티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는 KKMM 산하의 개인정보보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MCMC의 일반규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문이 일부 언급되어 있어 방송사와 통신사에 허가를 줄 때 개인정보보호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o (KCC) 콘텐츠 규율이라는 것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 드리고, 규율 위반시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규율 위반 시 불이익을 주고 방송국에 재승인, 재허가 시 반영이 되어, 재승인이 거부되는 수도 있음.

o (MCMC) 콘텐츠 규정에서 TV에서 방송되는 콘텐츠, 광고의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사회, 문화, 폭력, 종교,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임. 콘텐츠 규정 위반 시 방송 재승인에 반영되거나 법률에 따라 과징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됨.

【 OTT서비스 규제 및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

o (KCC) 말레이시아도 글로벌 OTT 사업자가 많이 진출해 있을텐데 국내에서 쓰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지,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음.

o (MCMC) 글로벌 OTT 사업자는 말레이시아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사업자 대상 별도의 라이선스는 없음.

o (KCC) 글로벌 OTT 사업자는 한국에 진출해 있으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 정부와 국회에서도 글로벌 OTT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음.

o (MCMC) 방송사는 글로벌 사업자의 콘텐츠 미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통신사는 가입자 증가 등을 위해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o (KCC)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는 많은 재원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임.

- 한국의 지상파 3사와 제1위의 통신사와 합작해서 웨이브라는 OTT를 출범하였음. 말레이시아도 OTT 선호도가 높은데 대응책이 있는지?

o (MCMC) 말레이시아는 OTT를 규제보다는 협력하여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전 세계 언어로 직접 번역하고 제공하고 있음. 로컬 콘텐츠 쿼터를 두거나,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임.

o (KCC)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콘텐츠를 공동제작하여 제 3국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한국은 콘텐츠의 강국으로, 특히 이슬람국인 말레이시아와 공동제작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강점이 있으리라 생각됨.

-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인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실질적인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한-아세안 FTA에 공동제작협정 근거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o (MCMC) 좋은 제안에 깊이 감사드림.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공동제작을 진행중임. 한국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공동제작 시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KKMM에 권한이 있어 정부 대 정부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음.

o (KCC)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은 여행, 다큐, 드라마, 영화 등 여러 분야가 있으며, 앞으로 KKMM과도 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니, KKMM에도 의사를 전달해 주기 바람.

o (MCMC) 말레이시아에서도 방송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겨울연가 같은 한국콘텐츠가 강점을 보이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콘텐츠와 한국의 콘텐츠가 합하면 강점을 보일 것으로 생각됨. 다시 한 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림.

【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

o (KCC)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에 대해 한국은 정부나 민간차원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어떠한지?

o (MCMC) 과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관련법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의 법률체계 내에서 대응하기로 함.

- 말레이시아는 최근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팩트체킹 웹사이트를 운영중임.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o (KCC) 가짜뉴스가 한 번 생산이 되면 SNS로 확산되는 속도가 정말 빠른데,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차단 시스템이 있는지?

o (MCMC) 특정 정보가 가짜 뉴스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 제공자와의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삭제하고, 장기적으로는 핀란드형 모델을 추구하여 가짜뉴스를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이를 위해 팩트체킹 할 수 있는 소스를 위해 포털사이트를 개설한 것임.

o (KCC) 한국은 지난 4월에 5G를 상용화했음. 4차 산업으로 가는 중요한 기술인데, 말레이시아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o (MCMC) 현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진행중임. 다음 달에 삼성도 말레이시아에 와서 5G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검토할 예정임.

【 마무리 】

o (KCC)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줄카나인 모하드 야신 최고윤리경영책임자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귀국해서도 관계자에게 잘 전달할 것임. 이슬람 콘텐츠 강국인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방송통신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제작도 추진되기를 바람.

o (MCMC) 오늘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함.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공동제작 관련해서 KKMM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며, 공동제작에 관한 타임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MCMC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Ⅲ. 언론보도 현황

BERNAMA.com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ays a courtesy visit to Bernama 1의 2페이지

MALAY | ENGLISH | MANDARIN | ARABIC | ESPAÑOL Log In

SELECT LANGUAGE GENERAL BUSINESS POLITICS SPORTS FEATURES WORLD WEBTV

INFOGRAPHICS ARCHIVED

MICRO SITE : Finance | Health | Energy | Property | Lifestyle

LATEST Social Welfare Dept looking for girl's family [3m ag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ays a courtesy visit to Bernama

Last update: 31/10/2019

advertisement

KUALA LUMPUR, Oct 31 –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eaded by its Standing Commissioner Pyo Chul-Soo paid a courtesy visit to the Malaysian National News Agency (BERNAMA) headquarters, here, today.

The KCC delegation also included Executive Assistant to the commissioner Kim Jeong Soo, Deputy Director Kang Yu Shin, and Assistant Director Park Hyun Nam, as well as researcher Park Young Wook and Korean-English interpreter Kim Jieun Jean.

Pyo and his delegation were greeted by Bernama's Chairman Datuk Seri Azman Ujang, Editor-in-Chief Datuk Mokhtar Hussain, Deputy Editor-in-Chief (News) Abdul Rahman Ahmad and Deputy Editor-in-Chief (Business and Finance) Khairdzir Yunos, Chief Operating Officer (COO) of Bernama Radio Azlan Idris, and Acting Head of Strategic Planning Nur-ul Afida Kamaludin, followed by a briefing on the news agency's operations as well as its products and services.

The meeting also discussed the rise of new media and its content policies as well as measures for cooperation on Korean Wave (Hallyu) contents.

– BERNAMA

There's room for greater media collaboration, says KCC

Last update: 31/10/2019

By Tengku Faezah Tengku Yusof

KUALA LUMPUR, Oct 31 –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ishe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Malaysia and Korea through various media platforms, said the agency's Standing Commissioner Pyo Chul Soo.

Pyo said among the best way to do so is through the Malaysian National News Agency (BERNAMA) and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as both have many media platforms such as television and online platforms.

"I believe there is room for further cooperation not only in the area of news, but we are also interested in co-production (of) programmes with other broadcasters in Malaysia including Radio Televisyen Malaysia (RTM).

"When we talk about co-production (of) programmes, it is not only news but also dramas, annual documentaries, and movies as well," he said during his official visit to Bernama headquarters, here, today.

Pyo also thanked Bernama for producing 'Hallyu Korea', a radio programme on air every Monday at 4pm, which discusses Korea's success through its innovations in areas such as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art.

During the visit, both parties also talked about fake news and its challenges.

Pyo note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significantly sped the spread of fake news, making it more important for the speed of accurate reporting to go up in order to be ahead of fake news.

"KCC is greatly concerned about this issue and we are researching how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sponding to fake news.

"In South Korea's largest university, we (have) created a centre where 27 media agencies are participating to conduct research on fake news; it is not on a large scale but it is taking steps in response (to fake news)," he said.

Pyo Chul Soo

The delegates paid a visit to the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at 3 pm today (Oct 31) and returning to South Korea tomorrow.

Meanwhile, Pyo said the ASEAN - Republic of Korea (ROK) Commemorative Summit will be held in Busan on Nov 25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ASEAN-ROK Dialogue Partnership which was established in 1989.

During the Summit, the Korean government is looking forward to meeting all representatives from ASEAN countrie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including asp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BERNAMA

http://www.bernama.com/en/news.php?id=1784796

News & Activities (/news/prnews) > Activities (/news/activities)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KCC) and Thai PBS delegates meeting to discuss strategies and OTT contents.

16:33 / 31 Oct 2019 / 11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as established on 16 March 1992, in order to be responsible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South Korea. The KCC produces legislation and regulation to ensure the freedom and expansion of the communications sector.

On 28 October 2019, PYO, CHUL-SOO, KCC Standing Commissioner and other delegates visiting Thai PBS Head office were welcomed by Deputy Director-General, Dr. Sudarat D. Chantrawatanakul, and Mr. Anupong Chaiyariti to discuss the three main topics which contains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rise of OTT and new media"

"Strategies to distinguish PBS content from Pay TV broadcasting"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Hallyu(Korean Wave) content"

During the discussion, Ms. Kanokporn Prasitphon, Program Department Director of Thai PBS has shown Thai PBS's Product/Service, Roadmap and OTT media service called VIPA (Vision-Passion) which provided audio and video streaming services to access any content anywhere, anytime via website, social media and VIPA mobile application with various genres of content and alternative language services.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KCC) and Thai PBS delegates meeting to discuss strategies and OTT contents.

MN 매일뉴스

방통위, '연합뉴스-말레이시아 통신사' 협력사업 추진하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미디어 협력 강화 의사 표명 ..."플랫폼 다양화 차원"

길소연 기자 ksy@maeilnews.co.kr

등록 2019.11.03 06:00:00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와 미디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어나마' 간 협력 사업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미디어 통신사와 협력 강화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미디어 협력 중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와 말레이시아 국영통신 베어나마(BERNAMA)사가 협력하는 것"이라며 "둘 다 텔레비전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있어 교류에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뉴스 분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등 다른 방송사와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표 상임위원은 "공동 제작 프로그램은 뉴스 외 드라마, 연간 다큐멘터리, 영화 등도 포함된다"며 타 방송사와의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방통위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동안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표 상임위원은 "인터넷 발달로 가짜뉴스 확산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며 "가짜뉴스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도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이 문제를 우려하며,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 27개 언론사가 참여해 가짜뉴스를 연구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Copyright © 2019 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